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The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조혜영¹ 유재경²

Hye-Young Jo¹ Jae-Kyung You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use of cultural facilities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by finding out their past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3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nd a total of four research participants.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to draw reliable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o uses of cultural facilities,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got information about cultural facilities through the Internet community such as Internet cafes and blogs. Their considerations for using cultural facilities were diversity of activity programs and subdivision of performances and arts activities. Over 50% of mothers responded that cultural facilities were needed to enhance the creativity of their children. Second, concerning difficulties of cultural facility use, the most difficulty was high costs, and the second most difficulty was absence of cultural facilities nearby their residence. Third, as to the needs of cultural facility use, a children's library was needed the most for children's development. They responded that the most necessary policy for cultural facility use was to increase cultural vouchers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to expand recipients of these vouchers.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1 제1저자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2 교신저자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mail : jxy143@ansan.ac.kr)

||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I. 서론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여 우리 사회에 유입되는 추세가 매우 가파른 형태로 나타나 2016년(6월 말 기준) 이미 29,543명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0-9세 어린 자녀들의 탈북이 1,234명으로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6). 그런데, 사상과 신념 등 이질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다른 문화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묵시적으로 남한사회에 다양한 민족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의 자녀들이 남한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요인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의 시도는 시대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의 국정과제를 통하여(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누구나, 언제든지 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Weaver(2005)는 문화적 인식을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가치, 경험을 인식하여 활용하는 것이라 한 바 있다. 즉, 문화 경험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이질적인 신념과 사상 등은 남한과 북한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 독일의 경우 문화예술로 서독과 동독의 다른 체계를 융화시켰으며, 발전의 토대를 이룩한 것과 같이(이미재, 2015), 문화예술의 정책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삶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 이렇듯, 문화가 “한국인의 삶 혹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개념어(김혜림 등, 2014, p.27)”로써 남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므로 문화 경험은 남한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와 남한사회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화 경험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남한사회에서의 문화 이용 경험이 어떠한지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남한사회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지원정책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북한사회에서는 문화를 통해 주체사상을 표방하고, 사회주의의 계승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정치적 신념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전영선, 조은희, 김태향, 2013). 이렇듯, 남한과 북한의 이질적인 문화환경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남한 생활에서 문화가 일상화가 되어있는 현 상황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문화를 인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개념보다는 남한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김희성, 2012; 허준영, 2012) 이들은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과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수용이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용은 개인이 준비되고 역량이 강화되었을 때 실천 가능한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수용은 남한사회에서의 건강한 적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문화를 누리는 시각 차이, 문화에 대한 이질성 등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이들의 문화시설 이용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유아는 주변 세계를 탐색하면서 오감을 통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발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아기에 경험하는 문화시설 이용의 경험을 학습의 연장선으로

접근하여 살펴볼 때, 견학과 같이 직접 경험을 통해 능동적인 학습을 끌어낼 수 있는 활동은 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은 집중력과 학습의 심화 능력을 확장하고 향상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한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4)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은 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 어린 시기에 문화를 경험할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Owen과 Shibi(1998)는 유아기에 문화 경험은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기에 문화 경험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를 둘러싼 물리적·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부모의 태도는 이들의 발달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주 양육자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자녀에게 롤 모델(role model)이 되는데,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78.9%가 ‘있음’이상의 응답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윤진, 이정원, 구자연, 2013).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와 문화시설 이용 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는 남한사회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의 문화통합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험은 부모의 소득, 교육수준 등 문화 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권현정, 박화옥, 2008; 류승희, 김수정, 이정옥, 2015; 이윤진 등, 2013).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2013; 최성일, 2012, 2013) 특히, 경제적 어려움 요인을 남한사회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여기고 있었다(조혜영, 권정운, 2013; 최성일, 2013). 문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신념, 태도 등은 자녀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취약성은 자녀의 문화 경험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안지영(2014)은 극빈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부모는 슬럼 문화를 지속해서 받아들이지만 이들의 자녀는 환경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이탈주민이 자녀와 함께 문화생활을 누리는 정도, 방법 등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Puma, Bell, Cook 그리고 Heid(2010)는 초기의 경험이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어린 시기에 문화를 많이 접할수록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한다고 보고 있지만(구은자,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Owen & Shibi, 1998)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 정보력 부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조혜영, 권정운, 2013) 남한가정 보다 문화 경험이 취약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자녀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정철현, 황소하, 2007)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 경험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류승희 등(2015)은 부모와 자녀의 문화생활 경험을 살펴보고, 유아의 문화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제반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을 밝힌바 있다. 이윤진 등(2013)은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문화 인프라(infrastructure) 이용실태를 알아본 결과,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재적 문화시설보

다는 키즈카페, 극장 등 사설재적 문화시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에 따라 문화시설 이용의 경험 차이가 발생하므로 문화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및 교육(김성남, 양옥경, 2015; 이운진, 이정림, 김경미, 2012; 조혜영, 권정윤, 2013; 조혜영, 권정윤, 박희영, 2014; 조혜영, 김미경, 이문옥, 2013; 홍주은, 2003)과 관련된 연구가 대체로 많았으며,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권정윤, 조혜영, 2013; 조혜영, 노현주, 2015; 조혜영, 배지희, 2014) 등이 있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이질적인 문화생활은 ‘다름’에서 비롯되어 편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문화시설 이용 경험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생활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문화 경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행위로만 비춰진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서의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주 양육자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과 어려움 및 요구 등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문화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의 시도는 이들의 자녀들이 남한사회에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종합하면, 북한에서의 문화예술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문화예술 자체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써 작용한다(이미재, 2015). 또한, 북한의 평양시를 제외한 지역은 문화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문화시설 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남한사회에서 문화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서의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경험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유아에게 문화 경험은 창의성, 감수성, 예술성 등 남한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을 함양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북한과 남한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융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 가정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이용과 관련된 어려움 및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문화시설 이용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어려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1) 연구대상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어려움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북생활권과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3명의 도움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진행에 도움을 주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3명의 가정에서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면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모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아동기 자녀(초등학교 저학년)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작성한 17부를 제외한 183부(91.5%)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참여자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어려움 및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남한에서 자녀와 함께 문화시설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가운데,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이 가능하면서, 인터뷰 녹취에 동의한 4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183)

연구대상	구분	n	%	연구대상	구분	n	%
연령	30세 미만~35세 이하	41	22.4	어머니 (서울특별시, 2006)	동북생활권	51	27.9
	35세 미만~40세 이하	94	51.4		거주지 ¹⁾ 서북생활권	27	14.8
	40세 미만~45세 이하	43	23.5		도심권	1	.5
	46세 이상	5	2.7		서남생활권	82	44.8
어머니 학력	고졸 미만	37	20.2	동남생활권	22	12.0	
	고졸	92	50.3	성별	남아	75	41.0
	전문대졸	35	19.1		여아	108	59.0
	4년대졸	18	9.8	유아	만 3세	69	37.7
대학원 이상	1	.5	연령		만 4세	42	23.0
거주기간	60개월 미만	43	23.5		만 5세	72	39.3
	60개월 이상-120개월 미만	103	56.3		첫째	136	74.3
	120개월 이상	37	20.2	출생순위	둘째	45	24.6
				셋째 이상	2	1.1	

1) 동북생활권(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서북생활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도심권(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남생활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생활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배우자의 국적, 소득, 남한의 거주 기간, 북한의 거주지 등에 따라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상이하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최대편차(maximum variation)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심층적인 면담을 이끌었다. 조사자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인 평택에 거주하는 A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ID	어머니				자녀				
	연령	거주지(남한/북한)	남한거주기간	배우자 국적	성별	연령	유아교육기관 유형	출생순위	형제관계
A	39	평택 / 평양	6년	남한	여	5세	어린이집	둘째	1남1녀
B	48	마포 / 함경북도	8년	북한	남	7세	어린이집	셋째	2남1녀
C	50	송파 / 함경북도	10년	북한	남	6세	어린이집	둘째	2남
D	33	마포 / 함경남도	10년	남한	남	7세	어린이집	첫째	1남

2. 연구 도구

1) 문화시설 이용실태, 어려움 및 요구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어려움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윤진 등(2013)이 유아문화 활동 실태를 알아본 설문지를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윤진 등(2013)은 ‘문화시설 이용 실태’(3문항), ‘문화시설 이용 필요성’(4문항), ‘문화시설 이용 정책’(4문항)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이용 실태’(4문항),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어려움’(1문항),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요구’(3문항)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문화시설 이용 실태, 어려움 및 요구 설문 문항

설문문항	설문내용	문항수	설문문항	설문내용	문항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4문항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어려움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움	1문항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문화시설 유아발달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문화시설의 필요 정도		이용과 관련한 요구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3문항
	문화시설의 필요 이유		문화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책		

2) 문화시설 이용경험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윤진 등(2013)이 사용한 질문내용을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특성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북한에서 생활할 당

시, ‘문화생활’에 대한 개념이 거주지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예: 평양은 락원, 대동문영화관, 놀이공원, 평양보링장/볼링장 등 문화시설이 있는 반면, 평양 밖의 지역은 문화시설이 미비한 상황 등)과 남한문화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과 북한에서의 문화 경험의 차이점’, ‘자녀와 함께 한 문화 경험’, ‘문화하면 생각나는 것’, ‘남한, 북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문화생활 경험’ 등 개방형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될수록 ‘남한과 북한에서 자녀와의 문화생활 경험’, ‘자녀와 함께 남한과 북한에서 문화생활을 할 때의 어려운 점’, ‘자녀와 남한에서 문화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과 고려점’, ‘남한과 북한에서 유아를 위한 문화 경험 방법’, ‘문화 경험과 관련하여 받고 있는 지원 종류’ 등 연구문제에 따른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3. 자료 수집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18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2015년 5월 10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3명에게 설문내용의 적절성을 검토받았으며, 유아교육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예비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놀이터’가 문화시설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북한에서는 ‘문화’의 개념이 지역의 문화시설 유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면담을 통해 도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수렴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5월 22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1명에게 설문문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받았으며, 응답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연구대상에 알맞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183부(91.5%)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2) 면담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27일에 면담에 대한 내용 및 소요시간, 용어 등에 대한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면담내용(예: 탈북과정에서 겪은 일 등)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여 면담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1월 4일에서 6일까지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개인면담은 각 1회 실시하였고, 집단면담은 3회 실시하여 총 7회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의 소요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국적, 소득, 남한의 거주기간, 북한의 거주지 등에 따라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상이하다는 예비연구결과를 고려한 질문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도출하였다.

4. 자료분석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및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어려움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

해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와 %를 알아보았다.

심층면담은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을 한 후, 전사하여 해석하였다. 면담에서 도출된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은 후, 자료수집과 분석의 순환적 관계를 고려하여 소주제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문화생활 의미’, ‘남한과 북한에서의 문화 경험’, ‘남한과 북한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시 어려움’, ‘남한과 북한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자녀와 주로 가는 문화시설 및 이유’, ‘자녀와 문화시설 이용 시 고려점과 요구’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문화시설 이용 경험과 관련된 내용 및 이질적인 언어사용 등의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에게 보여주어 내부자에 의한 검증 실시하여(Lincoln & Guba, 1985) 정확한 해석을 이끌었다.

Ⅲ. 연구결과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1)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아본 결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가 122명(26.3%)으로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TV, 라디오 방송’ 101명(21.8%),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72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기타의 의견으로는 자녀에게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시는 (남한사람)분들보다는 정보를 많이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래도 대체로 큰 것들, 그래도 (시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는 해운대가 유명하고 해운대 쪽으로 어떤게 볼 거리가 있지? 아쿠아리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인터넷) 밖에 어디 알아볼게 없죠.

(A_개인면담_1회)

<표 4>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N = 463)

문항내용	빈도	%	문항내용	빈도	%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122	26.3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54	11.7
TV, 라디오 방송	101	21.8	신문, 잡지, 전문서적 등	26	5.6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72	15.6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	16	3.5
지인	69	14.9	기타	3	.6

주. 다중응답으로 n값이 상이함.

그냥 많이 검색해보고 왜냐면 애가 있다 보니까 애들은 자꾸 어디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시기라 또 많이 보여주고 그래야하니까 엄마가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D_개인면담_1회)

A와 D어머니는 인터넷(internet)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남한 정부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A어머니(집단면담_1회)는 “하나원에 들어올 때, 북한에서 막 내려올 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저들(북한이탈주민)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말만 대한민국 말 뿐이지 외국말이나 같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하였으며, B어머니(집단면담_3)도 “하나원에서 공부 배워질 때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걸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거기는 열심히 배워줘요. 배워주는데 고향 생각에... (남한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하고...(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땅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 쓴지, 단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중국에 좀 정착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직행으로 온 사람들은 그 생각 할 시간이 없어요. 고향 떠나 온 생각에 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생각에 뭐 언제 공부에 대한 개념 그런 게 안 들어가거든.”이라고 하였다. D어머니(집단면담_2회) 역시 “하나원에서 교육을 주긴 하는데 그때는 내가 열심히 이걸 배워야겠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일단은 여기 새로운 생활에 접하니까 여기 생활은 어떨까? 이것만 생각하지 학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하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남한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함과 기대감을 갖는다고 하면서, 남한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교육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었다. D어머니는 남한에 정착할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남한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internet)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학원에서 개인적으로 배웠다고 하였다.

C : 저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없거든요. 정보가 없으니까, (좋다는) 입소문 나는 과정까지 어떻게 알지? 그게 항상 궁금해. 정보력이 좀 약하니까 더 잘 되는 영화다 뭐, 볼 줄 모르거든요.

항상 궁금해요. 남한 엄마들은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걸 어떻게 알죠? 아직까지도 의문이에요.

B : 나는 아직까지 선택권이 크게 없어요. 애들이 선택권이 많죠. (어린이집) 애들 엄마한테 물어봐.

A : 애들은 알아가지고 다른 애들은(친구는) 엄마랑 같이 가서 봤는데 빨리 가보자.

C : (남한 엄마들에게) 물어보다 혹시 이야기하다가 (내 뒷담화)말이 들려올 때도 있고... 나한테는 좋은 거 안 알려주더라. 좋은 건 자기 애만 하지. (남한 엄마들은 무조건) 1등 해야 되니까.

(집단면담_3회)

집단면담에서 북한이탈주민어머니들은 정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녀가 하고 싶은 문화를 즐긴다고 하였다. C어머니(개인면담_1회)는 “인터넷, 정보를 봐도 이게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고...”와 같이 좋은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의견에 무조건 따른다고 하면서 남한 어머니들은 좋은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D어머니(개인면담_1회) 역시, “저는 일 하고 이러니까 북한사람하고 만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왕이면 한국사람 만나려고 하는데...(남한 어머니들은 정보는) 주지 않죠.”라고 하면서, 남한 어머니들이 좋은 정보를 주지 않는 것에서 운함을 내보이고 있었다.

2)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본 결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가 15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를 배려한 공간 구성 및 이용의 편리성 제고’ 144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사항과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 우리도 놀고 싶은데... 아니 아이들은 더하겠죠?

C : (애들은) 많이 보고, 경험해야지. 우리는 북한에서 살면서 문화생활을 못해봐서 몰라요, 놀 줄도 모르고. 다 모르거든요. 내 새끼는 여기 자유주의 사회에 왔는데,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에 와서까지 북한에서 우리가 못 누리봤던 거를 애들까지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속담이 있잖아요, ‘집안에는 똑똑이 보다 날아 돌아다니는 오소리가 더 낫다.’고 북한에서 사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나가서 눈으로 본 게 그래도 더 말 한마디라도 더 낫지.

A : 애들은 만지고, 보고, 해봐야 이게 이거다. 이런걸 알잖아요? (자녀와 문화시설) 갈 때마다 보기만 하래. 우리 북조선에서도 김일성 전시장(모형판)도 보고, 외우고, 주입시키는데... (중략) 애들은 무조건 만지고, 뛰어야 하는데... 그게 (남한) 사회에 없다는게 문제지.

(집단면담_1회)

C어머니는 북한은 거주지에 따라 문화 경험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평양시를 제외하면 자녀를 위한 문화시설이 미비함을 강조하면서 자녀의 연령별 발달에 알맞은 다양한 문화 경험이 최우선이라 여기고 있었다. 집단면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유치원에 김일성의 생가, 사진 등 모형판을 만들어 전시해 놓고,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 사회에서 단순히 보고, 듣는 활동에 머무는 것 보다는 자녀들이

<표 5>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N = 183, 2순위N = 183)

문항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문항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	106	52	158	문화시설 내의 유아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36	26	62
유아를 배려한 공간 구성 및 이용의 편리성 제고	112	32	144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홍보)	26	21	47
접근의 용이성, 교통의 편의성	84	47	131	기타	2	3	5
				교육자료 인쇄물 제공	0	2	2

주. 1순위(빈도×2), 2순위(빈도×1)에 임의로 가중치를 두어 해석하여 n값과 전체 점수가 상이함.

직접 부딪쳐 보고, 만져보는 등 체험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우리 애가 11월 달 생이다 보니까 애기여가지고, (중략) 운전면허를 따야지 아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다니겠는데 애기다 보니까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A_개인면담_1회)

(남한생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낮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솔직한 말로 좀 몸이 아프니까 멀리 나가서 막 멍기게 되면 하루 종일 애들하고 웃지도 못하고, 애들만 놀았거든요.
(B_개인면담_1회)

A와 B어머니는 거주지 주변의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A어머니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평택)으로 이사하면서 지역에는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신체적 아픔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하지현, 2012), B어머니는 영어의 표지판, 간판 등 낮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선불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신체적 아픔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3) 문화시설의 필요 정도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의 필요 정도’를 알아본 결과, ‘보통’이 80명(43.7%)으로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필요함’ 74명(4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시설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 대부분이 자녀에게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에) 애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면 많이 놀라거든요. 옳고 옳고 를 딱 쿵 각때기를 벗기듯이 저리 딱 벗겨 놓거든요.
(B_개인면담_1회)

(문화시설에) 막 갔다 온 날에는 많이 표현해. 공부만 한 날에는 별로 안하는데 저는 또 여기서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문화생활 하고 오면 엄마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해 줘요. ‘여기 갔더니 엄마 이런 것도 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이렇게 나도 알게 되는 거죠.
(D_개인면담_1회)

<표 6> 문화시설의 필요 정도 (N = 183)

문항내용	빈도	%	문항내용	빈도	%
매우 필요함	21	11.5	보통	80	43.7
필요함	74	40.4	필요하지 않음	8	4.4

B와 D어머니는 자녀가 남한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질적·양적으로 풍부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북한에서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평양시내에 있는데, D어머니(개인면담_1회)는 “북한은 딱 봉쇄 속에서 사니까. 여기는 너무 자유로우니까.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내가 태어난 여기 한곳에만 살아야하니까. (통행증 없이는) 어디 갈 수도 없고...”라고 하면서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문화시설 이용하기에 어려운 환경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체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이며, 예술문화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문화수준이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어머니(개인면담_1회)는 “북한 유치원에서 문화는 김일성, 김정일이 고향에 대한 거 있잖아요, 석회화처럼 그려 놓고, 여긴 고향집이고 이 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중략) 북한은 사상을 표현하거나 표현의 자유가 없으니까 힘들다 말을 못하고 그걸 표현했다 하면 큰 일 나니까. 애기 때부터.”라고 하면서 자녀가 남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문화 경험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남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시설 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문화 경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면담내용에서와 같이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C : 공부는 100점. (자녀에게 문화생활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한 80점.

B : 애들은 지가 부딪히고 눈으로 보고 느껴야만 두뇌가 막 형성 될 때니까. 어른보다는 (빨리) 접착 (인지)하잖아요. (문화생활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발산해야) 딱 하니 공부를 하죠.

D : 저도 똑같죠. (남한에서는)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공부는 100점. 문화 이용은 80점?

(집단면담_2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문화시설 이용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인지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어머니(집단면담_1)는 “영어, 수학은 머리가 안 좋아서 못 따라 간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거(한글을) 제대로 안 배워준다는 거는 교육을 하려는게 아니고 아이들 데리고 문화생활만 누렸다는 거지.”라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교양원이 유아에게 기본적으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놀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조혜영, 권정윤, 2013) 교육의 의견 차이에서 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4) 문화시설의 필요 이유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의 필요 이유’를 알아본 결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가 13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발달을 위해’ 113점, ‘사회정서발달을 위해’ 112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시설의 필요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 문화 경험은 인지발달과 창의성 발달 및 사회성과 정서발달을 도모할 것이라 하였다.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두 번째 창의성이 생길 것 같더라구요. (견학을)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는 말이 어떨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꼭 짚어서 이야기 할 때도 있거든요. (중략)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라, 공부하라 해도 그 정말 시켜서 하는 거니까. 잊어버리 쉽잖아요. 그런데 이걸(견학은) 재밌게 자기 눈으로 보면서 배운거니까 더 안 잊어먹더라고요. (A_개인면담_1회)

A어머니는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할수록 인지적인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문화시설을 경험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 경험과 자녀발달 간의 상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남한 유아교육기관에서 견학, 소풍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의 어휘수준을 봤을 때, 문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인지, 창의성 등이 향상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B어머니(집단면담_1회)는 “나는 북한말 쓰고, 아이는 남한말 쓰는데) 말문이 막혀요. 저게 뭔가요? (물어보면) 선생님이 아니니 조곤 조곤 말을 못해줘요. ‘아 됐어, 됐어. 빨리 가자.’ 이런 식이잖아요. (문화 경험을 통해) 애는 직접적으로 보고 부딪히고 하니 저절로 감상하고 표현력도 넓혀지고, 좋더라고요”라고 하면서 남한사회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걱정했지만, 상호작용 결여에서 나타나는 부족함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문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남한) 와서 보니까 여기서(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 (북한에서 온 사람하고) 봤을 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뭔가 많이 틀리죠, 보면. 일단은 뭐 아는 게 많잖아요. 사회(생활)에도 많이 영향이 가는 거죠.

(D_개인면담_1회)

C : 저는 사회성. 여러 애들하고 톱질해서 같은 애들끼리 가지는 호기심... 애들은 호기심이 있는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체험...

D : 일단은 애기가 좋아하잖아요? 애가 뭐 많이 부딪히고, 자고 나면 너무 좋아하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일단 모든 걸 떠나서 (애가 너무) 좋아하는 게...

(집단면담_2회)

집단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주도적인 문화 활동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또래와

〈표 7〉 문화시설의 필요 이유 (N = 183)

문항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문항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창의성 개발을 위해	102	32	134	인지발달을 위해	76	24	100
신체발달을 위해	58	55	113	흥미와 재능 발견을 위해	32	23	55
사회정서발달을 위해	74	38	112	문화생활의 일상화를 위해	8	10	18
				건전한 놀이기회 제공을 위해	16	1	17

주. 1순위(빈도×2), 2순위(빈도×1)에 임의로 가중치를 두어 해석하여 n값과 전체 점수가 상이함.

의 관계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특히, D어머니(개인면담_1회)는 “일단은 뭐 정서쪽으로... 애가 맨날 공부만 하다보면 애가 제가 보기엔 7세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엄마들이 너무 공부를 시키고 학원도 막 보내잖아요? 전 학원비가 비싸서 그렇게 보낼 능력도 안되지만...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병 걸려요.”라고 하면서 자녀가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하면 정서적으로 발달할 것이라 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어려움

1)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움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체험학습비 부담’이 105명(23.1%)으로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접근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문화시설 부재’ 93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 비용부담과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상이한 문화 경험으로 인한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 8>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움 (N = 455)

문화내용	빈도	%	문화내용	빈도	%
체험학습비 부담	105	23.1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88	19.3
접근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문화시설 부재	93	20.4	위생상태 불량 및 안전사고 등 위험성	40	8.8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92	20.2	기관소유차량이 없어서	31	6.8
			어려움 없음	6	1.3

주. 다중응답으로 n값이 상이함.

자꾸 돈, 돈해서 염치도 없고... 내 새끼 키우다보면 욕심 생기죠. (남한)엄마는 돈이 많아 (자녀에게) 경험하게 하는데, 우리는 무료로 (남한에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안되잖아.

(C_개인면담_1회)

D : 애 데리고 어디가라면 100,000원 깨지는거... 100,000원은 쓴 것도 아니예요. 입장권도 얼마나 비싼지. 벌써 2명만 해도... 애들은 가면 뭘 사 달라. 어른은 가서 의자에 앉아있는데도 그렇더라구.

B : 맞아.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크죠. 월드컵 경기장에서 할 때 하나당 10분에 3,000원 이렇게 되잖아. 애들이라는 게 하나만 하나? 차 지나가게 되면 차도 타보겠다. 빙빙 돌아가는 거 있으면 그것도 타보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00원 같은 건 저리가라 하고 깨지지요.

(집단면담_2회)

면담에서와 같이, 자녀와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비용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가운데 배우자의 국적이 남한일 경우에는 그나마 여유롭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수급자에게 제공되어지는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마트 등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질적인 수준이 낮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C :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돈 내고 배우는 거하고 무료로 하는거 (문화시설을) 경험하는 수준이 좀 다르더라고. 국가에서 돈을 대줘서 배워지는 건데 내 부모가 돈을 안낸다는 입장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식이 (문화시설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무료와 유료는) 달라요.

A :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도) 무료로 가는 곳은 (어린이집) 교사가 다 해줘야 하잖아요? 교사가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이걸 뭐다 이걸 뭐다. (유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기(어린이집 교사)도 배워야 하고, 잘 안되겠죠.

B : (남한은) 돈 때문에... 그 놈의 돈이 죽일 놈이죠.

(집단면담_1회)

B : 복지관이 있어요. 1단지 가면 무슨 센터하고, 애들 경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D : 복지관에 뭐(프로그램이) 없어. 무료로 하는 거는 진짜, 별로야. 그게 잘못됐어. 무료면 진짜 볼게 없어. 애들 자체도 무료라고 하면 음... 별로 없어, 진짜.

C : 한국 엄마랑 애들 (무료로) 경험하는데 가봤어, 확실히 달라. 북한 엄마는 한국 물정을 몰라, 모르니까 거기서 하면, 하는 갑다 하는 거지. 한국 엄마는 시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대학졸업하고 똑똑한 어머니, 벌써 설명이 틀리면 반론을 제기 하더라구. 반론을 딱딱 하니깐 (문화시설에서도) 서운하게 안 해주지, 북한 엄마는 (무료로) 애랑 갔다 오면 모르니까 짜증이 확 나거든. (문화시설에서) 우리를 업신여겨요.

(집단면담_2회)

집단면담에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가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B어머니(개인면담_1회)는 “북한 중앙당국에 (농산물) 공급하는 곳(함경북도)에 있었어요. 교육 수준이 아주 높았거든요. (중략)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셨어요”라고 하면서 남한의 어린이집 교사는 문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문화 경험을 못해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C어머니(개인면담_1회)는 “엄마가 알아야 하는구나, (북한) 엄마는 모르니까 (기관에서) 시간 때우는 거예요. 애들도 죽도, 밥도 아니고. 그때는 좀 서러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줘서...”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남한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문화 경험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또 다른데 갔다 다른데 갔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좋아하는데... (우리 애는) 분수공원을 좋아해서 계속 가니 좀 질려하는 거 같더라고... 매번 다른데 갈 수도 없고... 갔던데는 지겨워하더라고요.

(C_개인면담_1회)

B : 나는 애들이요, ‘엄마 저는 한 번 가봤했어요.’ 애들은 한두 번 가보면 다음에는 더 안가잖아요. 근데 또 (유아교육기관에서) 그 위치에 그 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마포에서 가양으로 이동하면, 가양지구예요. 다음에 또 가양이에요. (애들은) ‘엄마, 나 갔던 데 싫어요.’ 표현을 한다니까요.

C : 우리(어린이집에서)는 주말 농장에 그 해 가고 다음 해에도 가더라도. 근데 저번에 가지를 했다면 토마토, 딸기 이러니까 그런(같은 장소인) 걸 생각 못 했는데... 난 갔던 데가 아니라 다른데를 데리고 가나 했지. (같은 장소인걸 알았다면 어린이집에) 항의 할 것 같아요.

B : 애들이 이야기 한다니깐요. ‘엄마 내가 갔던 데 또 간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사정이 그렇게 돼서요.’ 내가 거짓말을 써가지고 새로 꾸며서 열려서 보내거든요. 선생님하고 애하고 마찰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중략) 애가 만족도가 50%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는 갔다 오면 ‘엄마가 말하던 그대로 아니야. 내가 전에 봤던 그대로야.’ 엄마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거든요.

(집단면담_3회)

면담내용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새로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B어머니(개인면담_1회)는 “애들은 한 번 두 번 갔던 공간지는 안 가려고 하는데, 단체 생활이니까 가는 거고 (중략) 내 새끼만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을 수는 없잖는가...”라고 하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매년 같은 장소의 소풍, 견학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만족스럽지만 혹시 자신의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자녀를 달래면서 보낸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문화 경험은) 어려움이 많아도 너무 많죠. (중략) 북한에서는 지금 문화라는 말을 가져다 넣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거기(북한)는 그(문화) 자체가 없으니까... 문화 경험이 맞지 않죠.

D어머니(개인면담_1회)

C : (남한에서는) 저녁이면 운동한다고 (학교를) 정신없이 도는 거야. 주말이면 계속 산에 간다고 배낭 메는데, 옷기는 게 한국 오니까 그 무거운 배낭을 메는 거야. 북한은 쌀 같은 먹을 거 들고가는 배낭이 한국은 등산 갈 때 물 이런 거 가방을 메고... 그 개념도 모르고 배낭을 메고 다니는 건 북한하며 남한이며 (못먹고, 못사는 것은) 똑같구나. 일이나 할 거지 왜 산에 정신없이 다니고 저러지? 나물케나... 바깥에서 (자녀들이랑) 놀아 다니는거 보고 굶어 죽게 생겼네. 미쳤다.

B : 단 돈 1,000원도 아까워서 부들 떠는데, (남한에 정착하면) 내 손바닥에 쥐어지는 건 정부에서 뭐 300만원 나올 때. 다 쥐도 브로커 주고 나면 개뿔도 없고, 내일 먹을 게 바쁘고, 언제 나가서 놀러다니고, (문화시설) 그런 건 몰라요. 생각을 거기서(북한에서는) 전혀 못하고 뭐 그랬으니까...

C : (남한은) 월급 몇 프로는 문화생활에 쓴다 하잖아요. 영화보고 놀이장가서 놀고, 아깝게 돈을 쓰고 저러지? 돈 벌기 힘들다면? (남한에) 금방 와서 아예 그런 데(문화생활에는) 돌아도 안보고...

(집단면담_2회)

D어머니의 면담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함경남도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문화시설이 미비하여 남한에 정착할 당시, 문화생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착 초기에는 남한 사람들의 문화생활에 대해 “들어가 잠이나 자지.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정신적으로 맛이 갔는가?”라고 표현할 만큼 남한에서의 문화생활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집단면담에서도 북한에서는 ‘문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한에서 생활할 당시,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운동은 국력 강화를 위함이고, 음악은 사회

체제의 선동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남한에서 문화생활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낮은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조혜영, 노현주, 2015) 남한에 정착함과 동시에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낮은 남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음으로써 문화생활에 지출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B어머니(집단면담_3회)는 “수급자는 일 년에 한 사람당 50,000원 문화누리카드를 줘요. (중략)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라고 하면서 문화누리카드로 인하여 문화생활이 주는 삶의 즐거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만약,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못하였다면 아직까지도 “보따리 풀어놓고 나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지 아니까... 애들을 집에 가둬 놓고”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졌을 것이라 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요구

1) 유아발달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발달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을 알아본 결과, ‘어린이도서관’이 14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근처 놀이터’ 78점, ‘일반도서관’ 72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발달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자녀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냥 눈으로 훑 보고 지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북한에서도 김일성 전시장처럼 눈으로 보고 암송하고... (북한에도) 있어요. 내 새끼가 뭘 배우라는 겁니까?

(A_개인면담_1회)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우리는 책 살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한) 엄마들은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책도 잘도 빌리잖아요. 가보면 애들 건 없대... 우리는 어떻게 빌리는지 몰라요. (중략) 그냥 애들 공부하고, 책 읽을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좋죠.

(B_개인면담_1회)

<표 9> 유아발달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1순위 N = 183, 2순위 N = 182)

문화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문화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어린이도서관	102	44	146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10	10	20
기관근처 놀이터	34	44	78	어린이박물관	14	6	20
일반도서관	60	12	72	수족관, 동식물원	10	4	14
문예회관(예술의 전당 등)	38	19	57	일반박물관	4	6	10
놀이공원(어린이 대공원 등)	38	16	54	어린이미술관	4	5	9
사실 키즈카페(뽀로로파크 등)	26	11	37	일반미술관	4	0	4
과학관, 천체관	20	3	23	기타	2	2	4

주. 1순위(빈도×2), 2순위(빈도×1)에 임의로 가중치를 두어 해석하여 n값과 전체 점수가 상이함.

A와 B어머니는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교육을 강조하며 인지적 습득을 남한사회에서 중요한 요인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조혜영, 권정윤, 2013; 조혜영 등, 2014), 특히, B어머니는 동화책 등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지만, 지역에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2)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알아본 결과, ‘어린이도서관’이 13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공원(어린이 대공원 등)’ 71점, ‘기관근처 놀이터’ 66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 놀이시설과 문화센터가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B : 눈썰매장이 저기 있었지? 하늘 공원에... 이번에 안하던데, 근처에 놀만한 곳이 없어. (뽀로로 파크, 웅진 플레이 도시 등) 노는 곳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D : 올해는 없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진짜 겨울인데 눈썰매장 하나 없어요. 외곽으로 가야해. (집단면담_2회)

(강서구) NC 백화점은 11층에 크게 해놨어요, 엄마랑 애랑 같이 앉아서 휴식 할 수 있는 공간 해놓고 공연도 하고, 거긴 좀 비싸더라고요. 10,000원 정도 내더라고요. (NC 백화점이나) 웅진처럼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영등포 쪽에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마포에는 그런 게 없어요.

(D_개인면담_1회)

마포구 하늘공원 눈썰매장은 입장료를 포함하여 1시간에 1,000원으로 사설 기관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어린이 눈썰매장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겨울이 되면 주로 찾는 문화시설 중 하나이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개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사설 놀이기관

<표 10>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1순위 N = 183, 2순위 N = 183)

문항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문항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어린이도서관	108	28	136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공연장)	14	14	28
놀이공원(어린이 대공원 등)	36	35	71	과학관, 천체관	14	11	25
기관근처 놀이터	38	28	66	수족관, 동식물원	6	7	13
문예회관(예술의 전당 등)	40	17	57	일반박물관	8	1	9
사설 키즈카페(뽀로로파크 등)	24	21	45	어린이미술관	10	6	16
일반도서관	28	10	38	일반미술관	10	0	10
어린이박물관	26	4	30	기타	4	1	5

주. 1순위(빈도×2), 2순위(빈도×1)에 임의로 가중치를 두어 해석하여 n값과 전체 점수가 상이함.

이 지역 내에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보였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박물관, 미술관 보다는 테마파크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D : 그래도 테마파크 있는 게 최고겠죠. 애들은...

C : 나는 말해줘도 (테마파크가) 뭐지 몰라. 차 같은 거 막 부딪히는 그런 거 말하나?

D : 막 몸으로 부딪히고 놀고 하는... 북한말로 하면 물놀이... (중략) 아무래도 애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조용히 미술 같은 거는 어른들이 보고 감상하는 거지 애들은 별로... (유아기는) 많이 뛰어놀고 그런 시기잖아요? 나는 (박물관, 미술관 보다) 테마파크 들어왔으면 (중략) 그런데,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으면 미술관) 그건 찬성이죠. 그냥 미술보고 나오는 이런 거는 애들한테 별로...

C : 뛰어 노는거 아니면, 애들은 보는 거 싫어해. (미술관은) 못 만지고, 못 뛰잖아. 놀이장이 낫지.
(집단면담_3회)

집단면담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보다 테마파크를 원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유아들을 위한 체험활동보다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어머니(개인면담)도 “도서관, 미술관은 만지지 못하니깐. 뛰어 노는게 낫지.”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자녀가 김일성, 김정일 연구소를 관람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눈으로 보고 오는 것은 무의미한 활동이라 여기고 있었다.

(문화)시설이라기보다는 학원 쪽인데 이거는 요즘에 딸래미 때문에 그냥 검색을 하다보니까 도무지 없더라고요. 유아 댄스 이런 거. 몸치에 음치에 그러다 보니까... 딸래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풀어 줘야하지 않을까. 댄스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A_개인면담_1회)

B : 어디 센터(학원) 같은 이런데 (차로)떨겨주는 거 있잖아요. (어차피 유아교육기관에서) 안 시킬거면 (남한 애들처럼 발레, 주산, 태권도 등) 다 배와 줄랑께. 북한에서는 없기도 없고, 통제도 하고, 그니깐 못 배와준거지. (남한에는) 다 있는데... (문화누리카드) 해줘가지고...

C : (목동, 강남 등 유명한) 학원이 들어왔으면 해요. (북한에서는) 풍금 이런 선생님이 따로 있어서 (고위층 자녀들은) 배웠거든요. 우리도 다 (예체능 및 영어, 수학 등) 배워주고 싶죠.

(집단면담_1회)

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북한에서 자녀에게 예체능을 가르쳐주기에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예체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갖춘 남한사회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예체능 등을 위한 학습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어머니(집단면담_1회)의 경우에는 자녀의 예체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어린이집에서 한글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니면 차라리 대신 문화 쪽이라도 확실하게 해줘야지 (중략) (어린이집은) 전문가가 아닌데... 같은 값이면 전문가한테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문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문화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책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알아본 결과, ‘현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의 지급 대상 및 비용 확대’가 10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등)’ 83점,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야간 주말 시간 개장 및 프로그램 실시)’ 76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 문화바우처 지급 대상 및 문화시설 이용 예산을 확대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녀가 남한 또래와의 어울림을 통해 문화시설을 이용하길 원하면서 유아교육기관에 요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 다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탈북자들은 그래도 한국에 정착해 성공해서 자식들 좀 잘 키워놓고 하면, 통일이 되면, (탈북자들에게) 여기서 자란 애들 말 보다 그래도 우리 엄마 탈북자였는데... ‘아, 너네 엄마가 그랬어?’ 이렇게 공감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왔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가 왜 고통 받게 했지 않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면 애들 교육을 잘 시켜 남조선에서 보란 듯이 살아야죠. 그래도... 우리는 몰라도 자식한테는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C_개인면담_1회)

일단은 (남한에서 자녀의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혜택이 되는 거 없어. (탈북하여 남한생활에 정착할 당시에는) 내가 수급자라던가 이럴 때는 이런(정부, 기관 등)데 많이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수급자 딱 끊기고 보니까 혜택이 되는게 없더라고요. (남한 엄마들이랑) 똑같죠. 한국 사람이랑 살다 헤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애랑 둘이 사는 거잖아요? 몇 번 수급자 신청하러 갔는데도 지금 아빠 소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D_개인면담_1회)

<표 11> 문화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책 (N = 183)

문항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현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의 지급 대상 및 비용 확대	66	37	103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등)	60	23	83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야간 주말 시간 개장 및 프로그램 실시)	46	30	76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42	25	67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	44	21	65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콘텐츠 개발	34	21	55
기존 문화시설 내 어린이 전용 공간 설치(예: 일반도서관 내 유아열람실 등)	38	9	47
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18	11	29
기관 단체 이용 시 비용 및 인력 지원	18	6	24

주. 1순위(빈도×2), 2순위(빈도×1)에 임의로 가중치를 두어 해석하여 n값과 전체 점수가 상이함.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에게만 제공되어지는 문화누리카드의 대상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문화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혜택들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 또는 파트타임제로 근무하길 원하고 있었다(조혜영, 권정윤, 2013). 하지만, 일용직 근로 또는 파트타임제 근로는 고용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이종고를 겪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국가에서 받는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어머니는 이혼을 했지만 전남편의 소득으로 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일자리 역시, 북한의 고유한 억양, 말투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남한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특별히 다양한 지원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다.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해 주면) 직접 부모가 돈 만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그 카드 끊으면 그 사용 용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C_개인면담_1회)

B : 문화누리카드 있겠습니까? (50,000원) 사용 해 봤습니다. 보탬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설에서 단체 영화가 있습니다. 무조건 봐야 합니다. 몇 일까지 봐야 합니다. 그런 거는 못 봐요.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는 돈을 넣어 주니까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고..

D : 그 바우처도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주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득 때문에 안줘.

(집단면담_2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여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길 원하고 있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를 원하고 있었는데, 문화누리카드의 예산을 확대하여 언제든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A : 처음에 그(어린이집에서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소리 듣고... 뭐가 어이없냐면 용어도 아니고 공식 푸는 수학문제도 아니고 왜 한글까지 학원선생 불러다 돈 내면서 공부 시켜야 하나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배워지는 거를 왜 만족스럽게 못해주는가 하는 거예요.

C : 우리 북한에는 학교에서 다 배우거든요. 집에 가면 엄마 일 도와주고 동생들 봐야하고, 빨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 할 시간이 없어. 여기 애들처럼... 우리는 학교에서 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는 학교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다시 집에 가서 엄마가 공부도와주고 이러잖아요.

B : (남한에) 금방 와가지고... 큰 애를 학교 보내기 전에, 우리식 말(북한말과 교육)이 있고, ‘가가’부터 이렇게 나가면서 ‘가가거겨’를 배웠거든요? 내가 딸 아이를 가르쳤는데, 당연히 이북은 학교에서 다 넘어 뛰거든요? 1학년이면 무조건 한글 된 발음까지 모르는 애가 없어요. 여기(남한)는 앞서가는 애만 나가고 나 같은 엄마 애는 바보가 되요. (남한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부터) 받아쓰기를 시작하니까. 큰 애가 소학교(초등학교)가서 모르니까 빈 가방만 메고 빙빙 돌아요.

A : (어린이집에서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을) 포기해서 (애들에게) 문화생활을 더 뻑세게...

B : (교육은 우리가 따로 하더라도) 애들한테 문화적인 비용을 아끼지 말고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C :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차라리 문화생활 쪽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집단면담_1회)

C어머니는 “나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자녀 공부를) 포기했어요.”라고 하면서 남한 유아교육 기관에서 한글을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 교수방법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어머니(집단면담_2)는 “저쪽(북한)에서는 애들이 한글을 몰라 학교에 낙제생이 있으면 선생 박탈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사통과 하니...(중략) 나라 돈은 다 먹으면 서리 애를 막 대하고, 엄마는 계속 바실 바실 타는 거예요.”하면서 교사에게 지급되어지는 국가 보조금을 부모에게 직접 주어 교육과 문화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C : 뭐가 싫었던가하면요. 탈북자는 무조건 멀리 가야하는 거. (중략) 교육을 받는게 있는데, 거기 가서 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 가서 하지 일반(남한) 시민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A : 북한 새끼(아이)들은 끼지 못한다. 막 말하면 그 소리죠.

C : 이(남한) 사회가 살자면 두루두루 섞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탈북자끼리 모여 봐야 어제 온 사람 내처럼 10년 된 사람 다 모여 봐요. (남한에서) 크게 될 것 없고, 나도 탈북자지만 같은 무리에서 있으면 똑같은 (북한)사람이 예요. 더 배울 것도 없어요. 애들도 똑같은 거예요. 애들 하는 것도 뭐 섞어놓으면 좋지, 탈북자 애들만 이렇게 해서 (문화)경험시키면 아무리 그건(문화 생활이 좋더라도) 정말 완전히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집단면담_2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탈북자 자녀들 간의 문화 경험보다는 남한 유아들과 어울리면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신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모여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험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이용과 관련된 어려움 및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문화시설 이용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를 알아본 결과,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TV, 라디오 방송,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등 주로 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은 상이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문화시설 정보를 얻고 있다고

밝힌 권정숙, 유재경 그리고 조혜영(2015)의 연구결과와 남한 부모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다고 밝힌 류승희 등(201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반면, 권정숙 등(2015)과 이윤진 등(2013)은 ‘지인’을 통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남한 부모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수월하지만(류승희 등, 2015),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어머니들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남한 어머니들과 비교하면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고,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때문이라고(조혜영, 권정숙, 2013) 해석할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과는 달리 문화시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결국,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부재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점으로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한글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은 사실이나, 사상, 신념, 문화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수자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등의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주되, 문자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연동하여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는 ‘유아를 배려한 공간 구성 및 이용의 편리성 제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시공연 내용의 세분화’를 고려한다는 것을 밝힌 권정숙 등(201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본 연구의 면담에서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는 ‘접근의 용이성’으로 조사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무서움, 거부감 등이 있으므로(조혜영, 권정숙, 2013)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화 경험의 횟수보다 만족도 등이 문화참여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유재경, 권정숙, 조혜영, 2015) 공원, 운동장, 놀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예술 공연 등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남한 어머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필요 정도를 알아본 결과, ‘필요하다’의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보통이라는 응답도 43%의 높은 응답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의 약 90% 이상이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권정숙 등(2015)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필요한 이유로는 ‘창의성과 신체, 사회·정서 개발을 위해’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 경험은 ‘발달 및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 제고’를 도모한다고 밝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필요정도를 알아본 연구결과는 사회주의 체계를 가진 국가의 특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화는 사회주의 체계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기 때문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심미안을 함양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어린 시기부터 교육과 문화를 통하여 주체사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미 체득된 문화인식을 변화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전영선 등, 2013). 그런데, 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개인의 삶의 질과 안녕감 향상뿐만 아니라 자녀가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함양하는데 수월하므로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컨대,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참여 수업의 내용을 ‘우리 지역의 문화시설 찾아보기’ 등의 문화 활동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는 동시에 문화가 주는 행복감을 일깨워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 카페, 문화 캠페인, 마라톤, 길거리 전시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문화 경험이 보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체험학습비 부담’, ‘접근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문화시설 부재’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정숙 등(2015)이 문화시설의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접근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문화시설 부재’,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과 상이한 결과이다. 권정숙 등(2015)은 유치원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즉, 유아교육 종사자와 학부모 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난 만큼,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자본은 문화 경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류승희 등, 2015), 일반가구 보다 저소득가구의 이용경험이 낮을 수밖에 없다(이운진 등, 2013). 그런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2013; 조혜영, 권정윤, 2013; 조혜영, 노현주, 2015; 최성일, 2012, 2013)라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촉진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이들에게 스포츠는 국력향상을 위함이고, 음악은 사상과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라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물질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발달에 더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만큼(조혜영, 노현주, 2015),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문화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 즐거움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경우 사회주의체계에서 ‘문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인 미적 감각과 예술성 등을 간과할 수 있다.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이질화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남한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남한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요구를 알아본 결과, 유아발달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과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어린이 도서관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정숙 등(2015)과 이운진 등(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면담에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의 문화 경험을 위해서 미술관, 박물관 등은 자녀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특성을 고려한 전용 시설, 놀이시설, 문화센터가 필요한 문화시설이라고 하면서 전문가가 있는 사교육기관에 보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윤진 등(2013)이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기에 편리한 시설이 없으므로 불만족스럽다고 조사된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단순히 문화시설을 경험하는 것 보다는 문화시설의 만족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만큼(유재경 등, 2015), 기존의 도서관, 미술관 등에서 자녀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유희시설 및 유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으므로(Finnegan & June, 2001; Szekely, 2014) 이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추후 활동은 자녀발달에 더욱 효과적이므로(이형선, 정영희, 2004; 최민수, 이형선, 2004) 유아교육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에게 부모교육을 통하여 추후 활동의 방법 등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활동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의 조사에 의하면, 한 달간 사교육 이용을 알아본 결과, 학원/문화센터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약 35% 이상으로 나타난 만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로 하여금 남한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사교육으로 받아야 한다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남한사회를 비롯한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부모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기초능력을 위해 학업을 중요시하고, 선행학습을 시키는 등 대체로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o, 2000).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부모는 어린 자녀의 학업성취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Mistry, Biesanz, Chien, Howes, & Benner, 2008; Waanders, Mendez, & Downer, 2007),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우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감안한다면(최성일, 2012, 2013) 이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자녀 교육 정책과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사회는 교육열을 비롯한 문화활동과 경험 역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하여 과도한 지출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윤진 등(2013)이 부모를 대상으로 문화시설 이용을 알아본 결과, ‘키즈카페’의 이용이 48.8%로 높게 나타나 놀이문화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지발달이 아닌 심리적, 정서감의 안녕감과 더불어 전인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문화시설 이용의 경험을 단순히 학습을 위한 수단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문화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알아본 결과, ‘현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의 지급 대상 및 비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누리카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등 지역의 예산편성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일반 아동보다 다문화 아동은 발달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환남, 이선애, 2013), 다문화 아동의 언어 활용에서의 어려움과 언어발달의 지체에 대해(Junker & Stockman, 2002)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역시, 남한

유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장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에 있어 지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극빈 환경 속에서도 자녀는 환경에 융통성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안지영, 2014) 유아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어린 자녀들이 문화 경험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예산 지원 및 문화 인프라를 확대해 주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자녀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헤드 스타트(Head Start)의 효과성은 이미 검증이 된 바 있기 때문에(Puma et al., 2010)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조기개입 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자 민족에게까지 보다 확대하여 지원한다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동화될 것을 요구하며(김희성, 2012; 허준영, 2012)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언어를 중심으로 지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문화’는 이질적인 대상 간에 통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 공감대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문화생활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서를 이끌기 때문에(김미현, 김재범, 2015)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에서의 문화 경험을 강요하여 일회성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생활에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함으로써 남한 어머니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마찬가지로, 남한 어머니들이 북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과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다문화룰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이용 시, 어려움 및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문화시설 이용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문화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제기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문화에 대한 개념이 남한과는 상이하게 조사된 만큼,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남한 어머니들과의 비교연구는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역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 되는 문화, 교육, 복지 등의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지역차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

참고문헌

- 구은자 (2011, 5). **유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참여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서울.

- 권정숙, 유재경, 조혜영 (2015). 유치원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어려움: 안산시 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363-394.
- 권정윤, 조혜영 (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회지**, 17(4), 275-296.
- 권현정, 박화옥 (2008).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3), 535-553.
- 김미현, 김재범 (2015). 남한 예술 활동 참여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예술경영연구**, 34, 65-90.
- 김성남, 양옥경 (2015).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1), 5-38.
- 김환남, 이선애 (2013).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부적응행동 비교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229-252.
- 김혜림, 신지선, 조영주, 이은용, 장애리, 한미선 등 (2014).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김희성 (201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방안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9, 23-38.
- 남북하나재단 (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16).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 <https://www.koreahana.or.kr/eGovHanaStat.do>에서 2016년 8월 8일 인출
- 류승희, 김수정, 이정옥 (2015, 11). 미술관 기획전과 체험전의 전시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유아와 부모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2015년 임시총회 및 추계정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유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문화향유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201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20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서울특별시 (2006).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전략보고서. http://urban.seoul.go.kr/4DUPIS/download/sub3_1_old/1_seoul_basic.pdf에서 2015년 12월 21일 인출
- 안지영 (2014). 콜롬보 슬럼지역의 유치원교육과 빈곤가정 유아의 삶. **교육인류학연구**, 17(2), 111-160.
- 유재경, 권정숙, 조혜영 (2015). 예비유아교사의 유아기 문화경험과 문화자본이 문화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 인식 및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255-278.
- 이미재 (2015).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 정책이 통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5(1), 3-26.

- 이윤진, 이정림, 김경미 (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 이정원, 구자연 (2013).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형선, 정영희 (2004). 유아교육기관의 조형활동을 위한 박물관 활용실태조사. **교육과학연구**, 35(2), 337-356.
- 전영선, 조은희, 김태항 (2013). **맞춤형 교재개발 연구용역(북한이탈주민)**. 서울: 통일교육원.
- 정철현, 황소하 (2007, 6). **문화예술향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연예술 수용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발표논문, 충남.
-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41>에서 2016년 1월 8일 인출.
- 조혜영, 권정윤 (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에 대한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67-96.
- 조혜영, 권정윤, 박희영 (2014).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성취압력 및 교육신념과 교육열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4(2), 147-163.
- 조혜영, 김미경, 이문옥 (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영어교육 실태와 어려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201-228.
- 조혜영, 노현주 (2015).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59-78.
- 조혜영, 배지희 (201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91-114.
- 최민수, 이형선 (2004).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전통문화 인지 및 미술활동 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77-105.
- 최성일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과 과제**.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성일 (2013). **2012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하지현 (2012).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소통 방법의 이해. **통일인문학**, 53, 303-329.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2013 유아 문화예술교육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허준영 (201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21(1), 271-300.
- 홍주은 (2003). 북한이탈부모의 자녀양육 변화와 문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ao, R. K. (2000). Cultural explanations for the role of parenting in the school success of Asian-American children, In R. D. Taylor, & M. C. Wang (Eds.), *Resilience across contexts: Family, work, culture, and community* (pp.333-36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Finnegan, E., & June, E. (2001). Looking at art with toddlers. *Art Education*, 54(3), 40-45.
- Junker, D. A., & Stockman, I. J. (2002). Expressive vocabulary of German-English bilingual toddlers.

-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1(4), 381-395.
- Owen, E., & Shibi, S. (1998). Audiences for contemporary dance: Key issues arising from major study in Scheffield. *Journal of the Market Research Society*, 40(3), 273-276.
- Puma, M., Bell, S., Cook, R., & Heid, C. (2010). *Head start impact study: Final report*. Retrieved January 29, 2016, from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pre/hs_impact_study_final.pdf
- Szekely, I. (2014). Creating meaningful art museum experiences for young children: Discussions with future art teachers. *Art Education*, 67(4), 34-39.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Mistry, R. S., Biesanz, J. C., Chien, N., Howes, C., & Benner, A. (2008).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investments, and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of low-income children from immigrant and native househol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2), 193-212.
- Waanders, C., Mendez, J., & Downer, J. (2007). Parent characteristics, economic stress and neighborhood context as predictors of parent involvement in preschool children's educ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6), 619-636.
- Weaver, H. N. (2005). *Explorations in cultural competence: Journeys to the four directions*. Belmont, CA: Thomson.

논문투고: 16.04.13
수정원고접수: 16.06.16
최종게재결정: 16.08.05